



성보(聖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전국에 산재한 국보급 불교문화유적을 살펴보다보면 대부분 성보의 주인공으로 고승들의 화려한 명성을 쉽게 접하게 되지만, 전작 그 성보를 만든 이름 없는 도공이나 석공의 수고에 대해서는 스쳐 지나가게 마련이다. 성보의 문화재적 가치가 그 유적이 담아내고자 한 단순한 시대적 동기에 있다가보다, 유물 그 자체에 이로써겨진 기술과 공력의 가치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야 평가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시간과 공간을 엮는 성보의 올바른 독도법(讀圖法), 씨줄뽀만 아니라 날줄의 위치에서도 국보 유적의 결과 속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패시지 탐험의 안목이다.



◇홍덕사지에 새로 세워진 금당과 석탑.



세계최초 금속활자 直指의 고향

지난 천년간 인류문화사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금속활자'가 손꼽힌다. 금속활자를 통한 인쇄술의 발명은 정보화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사건으로, 인류 문화 발달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언어의 사용을 인류 정보화의 1차적 혁명이라면 문자의 장안은 경험과 지식을 정리, 체계화시킨 정보화의 2차 혁명이었고, 금속활자의 탄생은 지식과 정보를 대량으로 보급하여 인류 문화를 금속도로 발전시킨 정보화의 제3차 혁명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통한 초고속 IT산업의 시대로 정보화의 세기가 만개한 제4차 정보화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가 탄생한 홍덕사지(사적 제 315호)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에 마땅하고 '직지'를 탄생시킨 주인공들도 이 땅의 선지식들이고 홍덕사지 또한 그들이 머물던 절집이었다는 점에서 불자와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다.

1377년(고려 우왕 3년) 여름 밤 청주 땅 양병산 동남쪽 기슭에 위치한 홍덕사에는 백운화상(白雲和尚 1299~1374)의 문도들인 제자 석찬과 달담 등이 모여 선사의 안목이 집약된 <불조직지심체요절>을 목판이 아닌 주조본(鑄造本)으로 뜨기 위해 비지(非知)를 출리고 있었다. 활자를 만들기 위한 밀납, 만고에 빛날 경적을 인쇄할 종이 값을 마련한 사람은 비구나 묘덕이었다. 쇠물을 만들기 위해 장작더미에 풀무질을 하고, 장호지를 뜨기 위해 다나무 껍질을 벗기는

그들의 가슴은 달아오른 쇠물보다도 뜨거웠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스승의 일이 깃든 '직지심체'를 한자 한자 조판하는 무릎에는 기울어 가는 고려의 국운도 놓여 있었을 것이다.

'직지'의 고향인 홍덕사지가 발견된 것은 1894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운천지구토지개발' 공사를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민묘(民墓) 몇기가 아산 언덕 길을 막고 있어 합부로 파헤쳐지지 않은 것이 오히

도(佛徒)들에게 올바른 선종을 전등(傳燈)하여 법맥을 전수케 하고자 찬술한 '직지심체'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원본은 술한 수소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행방이 묘연하다. 다만 상·하 2권 중 하권만이 유일하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애꿎은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직지'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금속활자본 중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00년대 초, 이미 고려 왕실에서

‘興德寺’ 명문 청동쇠북·佛鉢발굴 ‘直指’ 간행한 홍덕사지로 밝혀져

5년간 복원... 불교성지보다 인쇄문화에 초점

려 세계적 문화유산의 숨결이 어린 홍덕사지를 보호하는 결정적 구실을 한 것이다. 1985년 청주대학 박물관에서 이 이름 모를 폐사지에 대한 발굴작업을 시작한 결과 '홍덕사(興德寺)'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 쇠북과 청동 불鉢(佛鉢) 등이 발견되어 <불조 직지심체요절>하권 말미에 기록된 '청주목의 홍덕사주자인시(興德寺鑄字印契)'라는 문구와 일치, '직지'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홍덕사지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흔히 '직지심경'이라 불리는 '직지'는 단편으로 기록된 불교의 경전이 아니라 백운 화상이 찬술한 <선문염송집>등 선가의 요체를 조목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다. '직지심체'는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의 수신오도의 명귀에서 채록한 것으로 강원의 대교과를 마치고 수의과(隨意科)에서 학승들이 공부하는 잠선의 대표적인 학습서이다.

'직지'를 찬술한 백운화상은 백운이 그 호이며, 법명은 경한(景閑)이다. 고려 충렬왕 24년에 전라도 고부에서 출생하여 중국에 건너가 양주 회암사에 자취를 남긴 인도 출신의 고승 지공(指空)화상으로부터 불법을 전수 받았다.

백운화상이 75세의 노안을 무릅쓰고 선

‘興德寺’ 명문 청동쇠북·佛鉢발굴

‘直指’ 간행한 홍덕사지로 밝혀져

5년간 복원... 불교성지보다 인쇄문화에 초점

려 세계적 문화유산의 숨결이 어린 홍덕사지를 보호하는 결정적 구실을 한 것이다. 1985년 청주대학 박물관에서 이 이름 모를 폐사지에 대한 발굴작업을 시작한 결과 '홍덕사(興德寺)'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 쇠북과 청동 불鉢(佛鉢) 등이 발견되어 <불조 직지심체요절>하권 말미에 기록된 '청주목의 홍덕사주자인시(興德寺鑄字印契)'라는 문구와 일치, '직지'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홍덕사지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흔히 '직지심경'이라 불리는 '직지'는 단편으로 기록된 불교의 경전이 아니라 백운 화상이 찬술한 <선문염송집>등 선가의 요체를 조목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다. '직지심체'는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의 수신오도의 명귀에서 채록한 것으로 강원의 대교과를 마치고 수의과(隨意科)에서 학승들이 공부하는 잠선의 대표적인 학습서이다.

'직지'를 찬술한 백운화상은 백운이 그 호이며, 법명은 경한(景閑)이다. 고려 충렬왕 24년에 전라도 고부에서 출생하여 중국에 건너가 양주 회암사에 자취를 남긴 인도 출신의 고승 지공(指空)화상으로부터 불법을 전수 받았다.

백운화상이 75세의 노안을 무릅쓰고 선

금속활자를 만들어 사용된 기록이(규보,<동국이상국집>)이 있었을 만큼 발전된 금속인쇄술을 갖고 있었다. 독일은 우리보다 78년 늦은 1455년에 구텐베르크가 '42행 성서'를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이 처음이고, 중국은 1490년 명조 대에 금속활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어둠의 한 권에 서서 역사를 풀무질하고 불심을 담금질하여 먹물 묻힌 사문의 손으로 만든 '직지'는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홍덕사지는 사지 발견 후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년간에 걸쳐 국비 29억과 지방비 14억 등 총 43억을 들여 금당과 석탑을 복원하고 고인쇄박물관을 건립하였다. 그러나 홍덕사지의 복원은 복원이 아닌 단순한 건축물의 겹대기를 축조한 것으로 잘못된 복원의 표상으로 그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직지'의 고향이라는 용어가 무색한 훼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홍덕사지가 불교적 성지로 복원된 것이 아니라 인쇄문화의 상징적인 의미로 복원되었다는 정치적 논리를 감안하더라도 홍덕사지는 사지(寺址)가 아니라 사지(死地)가 되어 버렸다. 종교의 성지를 문화재의 가치로만 보는 것은 그 안에 깃든 정신과 의미를 간과한 겹대기 사랑에 불과하다. 홍덕사지가 명실상부한 직지의 탄생지로 그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훼손의 관점에서 홍덕사지의 잘못된 복원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또 다른 폐사지 복원에 있어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시인·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사진=고영배 기자

다음은 충주 주덕 송신사지



◇홍덕사지 발굴 유물 중 '홍덕사 명문이 새겨진 청동쇠북(사진 위), 청동쇠북(아래)의 유물들에 의해 '직지'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홍덕사지임이 밝혀졌다는 설명이 담긴 사진=국립청주박물관 제공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계미년 새해 소원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7지 소원이 성취되는 신비의 염주

불자님의 고인 금강염주가 해결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다. 소원 27지가 꼭 이루어진다고 전래되는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원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탈문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향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이다.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부평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한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7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다. 금강염주는 수천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날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공전과 강력한 기가 발산되는 세계유일의 염주다. 부처님 성구인 염주를 판매하는 사람이 정중히 취급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합부로 넘거나 막 사용하면 그 염주는 영험이 다 떠나 되는 일이 없으며 성구가 아닌 악세사리 구슬에 불과하다.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받고 소원이 성취된다. 금강염주는 12만주와 108주염주 1세이며 신용카드도 분할구입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한다.

농협: 743-02-563237 정혜철 금액: 195,000원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신 사용하실 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사람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고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는 다음 27지 소원만 꼭 기원하며 3배 하신 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높은곳에 올려놓고 3일 후 부터 사용하시면 된다. 점안 3일간 햇빛은 집안에 있는 잡귀들을 물리치는 날이며 둘째 날은 집안에 힘을 넣어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날은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드리는 날이다. 점안식 3일간은 어느 누구도 염주를 만지면 영험이 없으므로 높은 곳에 개봉하여 올려 놓으면 된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연세대학교병원(서울)·연세대학교(서울)·연세대학교(대전)·연세대학교(부산)·연세대학교(대구)·연세대학교(광주)·연세대학교(제주)·연세대학교(충주)·연세대학교(청주)·연세대학교(포항)·연세대학교(울산)·연세대학교(대전)·연세대학교(부산)·연세대학교(대구)·연세대학교(광주)·연세대학교(제주)·연세대학교(충주)·연세대학교(청주)·연세대학교(포항)·연세대학교(울산)



세계최고급 名品 흑단무늬목바루

베트남 국민영웅 공예가 NGUYEN BACH KHOI 작품



세계적인 명품 흑단 무늬목 바루

존경하는 스님께 최고의 보시는 바루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나무에서 꽃과 원적외선이 상온에서(현 재온도) 발산되는 나무가 흑단 무늬목이다. 名品을 고집하는 금강염주사에서 베트남의 국민영웅 공예가 연위엔 박 코이(65세)작품으로 200세7가 제작되어 인연과 연분으로 존경하는 스님께 보시할 불자님을 기다린다. 동남아 국가에서는 건강과 행운을 안겨주는 나무로 부처님께기도 사용하신것으로 전해 된다. 흑단 무늬목 바루는 꽃과 원적외선이 발산되어 음식을 담아 놓아도 상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흑단무늬목을 일곱번을 삶아 그늘에서 건조시킨 다음 바루를 만들어 다시 한번 삶은 다음 정조 작업을 한 후 바루에 일곱번의 숯칠을 해야 만이 흑단무늬목 바루가 탄생된다. 1세가격은 95만원으로 존경하는 스님께 보시할 인연의 불자를 기다리고 있다.

흑단무늬목 바루문의(02)722-0880

* 베트남에서 직수입한 흑단 목 108염주를 불자님들께 보시할 흑단 목 108염주를 사할때게신 스님께주문여야 받습니다

신비의 은행석편지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은행석입니다. 저는 죽어가는 것도 살한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 받아 붓으면 물이 넘으면 붓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펴지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 25알을 넣으면 붓어는 10분내로 성형하게 살아납니다.

또한 기침을 심하게 하는분은 베게속에 은행석 25알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뚝 멍습니다. 이외도 죽어가는 것은 다 살릴수 있어 스님 베게속에 은행석 25알만 넣고 주무시면 스님은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등이 걸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없어지고 항암치료로 비효과가 뛰어나요. 스님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가와 같이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해요. 제 고향, 북한에서는 고위층 인사들이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는데 한국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스님만은 저를 믿고 베게속에 넣으시면 스님은 평생 뇌에 관한 병은 없으시고 15년내로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북한보건의원에서 검증된 다 받고 한국에 왔어요. 스님 건강하시고 포교 많이 하세요. 스님 35,000원입니다. 스님 제 전화는 (02)722-1850 입니다.

★농협: 170-12-056037 정애영